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5.1.22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자하리에바 연구담당 집행위원, FP10에 대한 주요 견해 제시(1.16)

- 집행위원은 FP10의 예산이 2,200억 유로로 증액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며, 예산 증액보다는 개혁과 간소화를 우선시하고자 한다고 밝힘
- 이를 위해 '26~'27년 동안 간소화된 지원 절차와 2단계 신청 절차 도입, 워크프로그램 텍스트 간소화 및 럽섬 펀딩 추가 확대를 계획 중임을 밝힘
- EIC의 Arpa형 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,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계획이 필요
- 이에 더해 연구개발투자비율 3%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고 언급, 호라이즌 유럽 협력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EU의 혁신 보호 및 안보 위협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

○ 집행위, 회원국에 반도체, 인공지능, 양자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 검토와 경제 안보에 대한 위험 평가를 촉구하는 권고 발표(1.15)

- 권고는 회원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위험한 세 가지 기술 분야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안보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
- 회원국은 '25년 7월까지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고, '26년 6월 30일 까지 권고의 이행과 확인된 위험에 대한 통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
○ 워크프로그램 2025 클러스터1 초안, 보건 연구에 8억 300만 유로(1.16)

- 보건 클러스터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글로벌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며, 건강 분야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연구를 지원할 것
- 환경 문제에 관하여는 오염이 뇌 질환 및 장애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미세 및 나노 플라스틱의 영향을 다루는 공고가 포함될 예정
- 기타 중점 분야로는 질병 예방 및 개인 맞춤형 의료,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평하고 포괄적인 접근성, 국경 간 건강 위협에 대한 대응 개선,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역할, 장애인의 재활 및 삶의 질 개선 등이 있음

○ (기타) ▲집행위, EU 하이테크 부문 로열티에 대해 중국에 이의 제기(1.20) ▲ EU, 철강 및 석탄 분야의 연구혁신 및 공정한 전환에 1억 7,500만 유로(1.20)